

TWO TONE COLOR
Design INDEX NOTE

필
담
노
트

11/214/로

여기 체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수렴정진하시로 스님들
밖에서 만나게하시로 스님들나 신도분들 큰함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로 万幸을 하시로 福를 맞으소서.

(체험2일째 아침양이 들기전에 큰쪽
"이 방한이 아기가 함으로 귀고정하"는 원자가 생각나네요.
함으로 활동하신 리더자라 함께 함이 정복하니 고맙습니다.)

11/214/로 체험하신 리더자라 함께 함이 정복하니 고맙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체험기간 내내 경을 들을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잊을수 없는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여분의 스님들께서 속담하게 숙문함을 나오시길 기원드립니다.
상임선원의 경사가 함자게 뻗어나가길 기원합니다 ().

Subject

Name

Student ID

Description

Page

TIME TABLE

		MON	TUE	WED	THU	FRI	SAT
1	Subject						
	Teacher						
2	Subject						
	Teacher						
3	Subject						
	Teacher						
4	Subject						
	Teacher						
5	Subject						
	Teacher						
6	Subject						
	Teacher						
7	Subject						
	Teacher						
8	Subject						
	Teacher						
9	Subject						
	Teacher						
10	Subject						
	Teacher						

Year

Term

Name

School

한만해요?

영국·작안병이로

가득채우기

정말 힘들다

다들 아프고

소음이 심해서 잠을 못

잘 수 있어 다들 힘들어

2020년 작 안아가지는데...

미국도 힘들어

작가님 2020년 해일스님

이런 것 원해서 하신 것

제일 먼저 하세요?

개이끼로 흔들리기 두 해

가장 먼저 기사 써주세요?

이제 저희는 여기 주축이 되어

다들 주축이 여기로 이동

주축이

주축이

주축이

가장 먼저 기사 써주세요

제일 먼저 주축이

22년 1월 1일

2월 1일 1월 1일 1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여기 스테판이 드디어 눈썹 하나 바뀔지
안지리 해놓은 드디어예요...

다음날이 되자. 눈썹이 많이 바뀐 거

~~어떤~~ 말고 제1인 드디어예요.

어디까지 바뀐 되나?

라디오는 언제 11~12시

(아름답게)

다음날이든 다음날이든 드디어 눈썹 하나 바뀔지.

아름답게 주머니에 해질수록 바뀔지?

지금 어떤 거 바뀔지

제가 바뀔지

스물 일곱??

여기 드디어는 바뀔지

아름답게 바뀔지

어떤 스타일 바뀔지. 바뀔지

여기 바뀔지

이번 스타일은 바뀔지. 바뀔지

바뀔지

BBS 71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No. 71 Date

0.6 < 1.571 0.72 = 1.115 5.142

장하는 다 드나와. 리플X

12월 21일. 토요일. 12월 21일. 토요일.

2 21 115 25 76 2 21 115 40
2 21 115 25 76 2 1

665 2795

15

$$\frac{7}{2} \leq 71 \quad \frac{1}{2} \leq 21 \quad \frac{1}{2} \leq 21$$

21 21 64 21 21

71KVL $\frac{2}{2} \text{ } \frac{2}{2} = 24214$

$\angle C$ $\angle K$ $\angle F$ $\angle G$ $\angle H$ $\angle I$ $\angle J$ $\angle L$ $\angle M$ $\angle N$ $\angle O$ $\angle P$ $\angle Q$ $\angle R$ $\angle S$ $\angle T$ $\angle U$ $\angle V$ $\angle W$ $\angle X$ $\angle Y$ $\angle Z$

저는 또한 $\frac{1}{2}$ 을

$\frac{d}{dt} \left(\frac{1}{r^2} \right) = -\frac{2}{r^3} \frac{dr}{dt}$

1. 정확한
 2. 신속한
 3. 경제적
 4. 안전성
 5. 신뢰성
 6. 유연성
 7. 확장성
 8. 유지보수
 9. 협업
 10. 데이터
 11. 보안
 12. 통합
 13. 자동화
 14. 클라우드
 15. 모바일
 16. 빅데이터
 17. 인공지능
 18. 블록체인
 19. IoT
 20. 로봇

Handwritten notes on lined paper:

Handwritten text (partially obscured):

Handwritten text (partially obscured):

Handwritten text (partially obscured):

7/6/2020

7/2008

2月21日

$$0.1 \times 10^4 \leq \frac{1}{2} \times 10^4$$

541 2052 1044 777

한 소금 동안 지내다 $\frac{1}{2}$ $\frac{1}{2}$ $\frac{1}{2}$
계속 풀 반 냇이

21일 1월 1일 월요일

No. Date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2월 1일 월요일

제12월의 징입은 많으니 나가서 징입을 하라.

$\frac{1}{6} \cdot \frac{1}{4} = \frac{1}{24}$

46 ~~60~~ 7

Σ 7124 0m

25/7/21

21st July 2021

$\frac{1}{6} \times \frac{7}{8} = \frac{7}{24}$

다 다다다 $\frac{1}{2}$ 2리 내는

27291 1160 일명 27291

627-1 01 20 400

7

2. $\frac{1}{2} \times \frac{1}{2} = \frac{1}{4}$

Handwritten notes on lined paper, including the word "Handwritten" and various symbols and numbers.

1/15/2019

3/4

0771 09 6144 84591

$$\leq \frac{C}{n^{\frac{1}{2}}} \sum_{k=1}^n |x_k| \leq C, \quad \text{with } n^{\frac{1}{2}} \text{ and } C \text{ depending on } h$$

2.4.2. 다 등거리인 $X_1, \dots, X_n$ 에 대하여

$\frac{1}{2} \cdot \frac{1}{2} = \frac{1}{4}$

$2\sqrt{2} \leq r < 4$ $\frac{\pi}{6}$ $2\sqrt{2}$ $\frac{\pi}{6}$

১৯৫০

$\frac{9}{2} \leq \frac{31-6\sqrt{5}}{2} \leq 2\sqrt{2}\sqrt{5}$

221, 221, 61, 71

2201 1000 0000

222cm $\frac{1}{2}$ $\frac{1}{2}$ $\frac{1}{2}$

5) $2n, n, \frac{n}{2}, \dots$ $\frac{n}{2}, \frac{n}{4}, \frac{n}{8}, \dots$

ॐ नमो भगवते वासुदेवाय

Handwritten notes in Korean, including a circled section and various calculations or lists.

Date

따로 받지도 안하고
거기서 그냥 한때는
버려둬라 20~30년 전
경남에 가서 살게 되면
자녀도 부를까봐... 이제
부르니까

28/10/22 22:15

$\frac{1}{x^2} = x^{-2}$

01 46 22 ~~46 22~~

2. $\frac{1}{2} \times \frac{1}{3} = \frac{1}{6}$?

Went to the

1234567

이제야

$\frac{1}{\sqrt{2}} \left(\frac{1}{\sqrt{2}} + i \frac{1}{\sqrt{2}} \right)$

1975-1976

하루 2시간씩

(Handwritten scribbles)

21.1.14
Cm 2076 2077
Nini + Witz
Fdr....

나 품 M 3/30

11월 12일 2월 1일 7)

나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월 1일 7)

2022년 2245

No. Date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2022년 2245

Date _____

2%

2/14/06
2/14/06

2345 78910...

24.11.2019

Mykonos 2014

07/07/2017

[Handwritten notes in Korean, mostly illegible due to extreme slant and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3/1/2020

275 67 7712 24 9 11
27 22 11 27

$$\frac{1}{2} \leq \alpha_1 \leq \frac{1}{2} \leq \frac{1}{2}$$

2011/3222

$$27 \leq 33$$

2/2/20

2/6/2008

21551502

27-11-2021

715711 261229 222222

22-23-24

Handwritten notes on lined paper, circled in blue ink. The text is written in a cursive script and appears to be a list or a set of instructions. The circled text includes:

- 1. $\frac{1}{2}$ cup of sugar
- 2. $\frac{1}{2}$ cup of butter
- 3. $\frac{1}{2}$ cup of oil
- 4. $\frac{1}{2}$ cup of milk
- 5. $\frac{1}{2}$ cup of eggs
- 6. $\frac{1}{2}$ cup of flour
- 7. $\frac{1}{2}$ cup of baking powder
- 8. $\frac{1}{2}$ cup of vanilla
- 9. $\frac{1}{2}$ cup of salt
- 10. $\frac{1}{2}$ cup of yeast

There are additional handwritten notes outside the circle, including "1/2 cup of sugar" and "1/2 cup of butter".

작가나눔하고 주고 받은 - 10-1-1

기타의 <대문> 되시나요?

No.

Date

3/14/16
2/2/16
3/2/16
3/3/16
3/4/16
3/5/16
3/6/16
3/7/16
3/8/16
3/9/16
3/10/16
3/11/16
3/12/16
3/13/16
3/14/16
3/15/16
3/16/16
3/17/16
3/18/16
3/19/16
3/20/16
3/21/16
3/22/16
3/23/16
3/24/16
3/25/16
3/26/16
3/27/16
3/28/16
3/29/16
3/30/16
3/31/16
4/1/16
4/2/16
4/3/16
4/4/16
4/5/16
4/6/16
4/7/16
4/8/16
4/9/16
4/10/16
4/11/16
4/12/16
4/13/16
4/14/16
4/15/16
4/16/16
4/17/16
4/18/16
4/19/16
4/20/16
4/21/16
4/22/16
4/23/16
4/24/16
4/25/16
4/26/16
4/27/16
4/28/16
4/29/16
4/30/16
5/1/16
5/2/16
5/3/16
5/4/16
5/5/16
5/6/16
5/7/16
5/8/16
5/9/16
5/10/16
5/11/16
5/12/16
5/13/16
5/14/16
5/15/16
5/16/16
5/17/16
5/18/16
5/19/16
5/20/16
5/21/16
5/22/16
5/23/16
5/24/16
5/25/16
5/26/16
5/27/16
5/28/16
5/29/16
5/30/16
5/31/16
6/1/16
6/2/16
6/3/16
6/4/16
6/5/16
6/6/16
6/7/16
6/8/16
6/9/16
6/10/16
6/11/16
6/12/16
6/13/16
6/14/16
6/15/16
6/16/16
6/17/16
6/18/16
6/19/16
6/20/16
6/21/16
6/22/16
6/23/16
6/24/16
6/25/16
6/26/16
6/27/16
6/28/16
6/29/16
6/30/16
7/1/16
7/2/16
7/3/16
7/4/16
7/5/16
7/6/16
7/7/16
7/8/16
7/9/16
7/10/16
7/11/16
7/12/16
7/13/16
7/14/16
7/15/16
7/16/16
7/17/16
7/18/16
7/19/16
7/20/16
7/21/16
7/22/16
7/23/16
7/24/16
7/25/16
7/26/16
7/27/16
7/28/16
7/29/16
7/30/16
7/31/16
8/1/16
8/2/16
8/3/16
8/4/16
8/5/16
8/6/16
8/7/16
8/8/16
8/9/16
8/10/16
8/11/16
8/12/16
8/13/16
8/14/16
8/15/16
8/16/16
8/17/16
8/18/16
8/19/16
8/20/16
8/21/16
8/22/16
8/23/16
8/24/16
8/25/16
8/26/16
8/27/16
8/28/16
8/29/16
8/30/16
8/31/16
9/1/16
9/2/16
9/3/16
9/4/16
9/5/16
9/6/16
9/7/16
9/8/16
9/9/16
9/10/16
9/11/16
9/12/16
9/13/16
9/14/16
9/15/16
9/16/16
9/17/16
9/18/16
9/19/16
9/20/16
9/21/16
9/22/16
9/23/16
9/24/16
9/25/16
9/26/16
9/27/16
9/28/16
9/29/16
9/30/16
10/1/16
10/2/16
10/3/16
10/4/16
10/5/16
10/6/16
10/7/16
10/8/16
10/9/16
10/10/16
10/11/16
10/12/16
10/13/16
10/14/16
10/15/16
10/16/16
10/17/16
10/18/16
10/19/16
10/20/16
10/21/16
10/22/16
10/23/16
10/24/16
10/25/16
10/26/16
10/27/16
10/28/16
10/29/16
10/30/16
10/31/16
11/1/16
11/2/16
11/3/16
11/4/16
11/5/16
11/6/16
11/7/16
11/8/16
11/9/16
11/10/16
11/11/16
11/12/16
11/13/16
11/14/16
11/15/16
11/16/16
11/17/16
11/18/16
11/19/16
11/20/16
11/21/16
11/22/16
11/23/16
11/24/16
11/25/16
11/26/16
11/27/16
11/28/16
11/29/16
11/30/16
12/1/16
12/2/16
12/3/16
12/4/16
12/5/16
12/6/16
12/7/16
12/8/16
12/9/16
12/10/16
12/11/16
12/12/16
12/13/16
12/14/16
12/15/16
12/16/16
12/17/16
12/18/16
12/19/16
12/20/16
12/21/16
12/22/16
12/23/16
12/24/16
12/25/16
12/26/16
12/27/16
12/28/16
12/29/16
12/30/16
12/31/16

얼굴이 지르거니 지르거니

No. Date

22인 더듬 더듬하니 나중이 훨씬

생각했던 것보다 기분이 바쁘기 후가 되고 있다

떨어지는 것 같네요. 바빠서 뭐 하세요?

여기랑 비슷하게

22인 이혼 3인

이혼

가장 잘

~~가장 잘~~
~~가장 잘~~
~~가장 잘~~

다저히신분과 사람이기

싱글-X 22인님 독대

가서 22인 신분과 주가...

22인님 신정식

나중에 나가서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바라보고

이 바

하루

22인

바라보고

출발하다

다모인

가다?

거기
대기!

22인이 들어오는 문이

22인(!) 하라 22인

안녕가 싶기도 하다..

여기 22인입니다.

22인입니다...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22인

은 초로 ? 어디서 ?

No. Date

24. 11. 14. 2024. 12. 1. 2.

나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네. 24. 11. 14. 2024. 12. 1. 2.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11월 14일 일요일에 출근했어.

2024. 11. 14. 2024. 12. 1. 2.

이제 뭐하든

No. 나이 Date

12월 12일
수요일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이제 뭐하든

안녕하세요 보신 여쭙고싶은건데...

보신 여쭙고싶은건데...

아래의 글은...

다시...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아래의 글은...

57K207C-71 No. 741 Date 2022.12.22

[illegible]

1. 2017년 12월 27일
 2. 2018년 1월 10일
 3. 2018년 1월 15일
 4. 2018년 1월 20일
 5. 2018년 1월 25일
 6. 2018년 1월 30일
 7. 2018년 2월 5일
 8. 2018년 2월 10일
 9. 2018년 2월 15일
 10. 2018년 2월 20일
 11. 2018년 2월 25일
 12. 2018년 2월 30일
 13. 2018년 3월 5일
 14. 2018년 3월 10일
 15. 2018년 3월 15일
 16. 2018년 3월 20일
 17. 2018년 3월 25일
 18. 2018년 3월 30일
 19. 2018년 4월 5일
 20. 2018년 4월 10일
 21. 2018년 4월 15일
 22. 2018년 4월 20일
 23. 2018년 4월 25일
 24. 2018년 4월 30일
 25. 2018년 5월 5일
 26. 2018년 5월 10일
 27. 2018년 5월 15일
 28. 2018년 5월 20일
 29. 2018년 5월 25일
 30. 2018년 5월 30일
 31. 2018년 6월 5일
 32. 2018년 6월 10일
 33. 2018년 6월 15일
 34. 2018년 6월 20일
 35. 2018년 6월 25일
 36. 2018년 6월 30일
 37. 2018년 7월 5일
 38. 2018년 7월 10일
 39. 2018년 7월 15일
 40. 2018년 7월 20일
 41. 2018년 7월 25일
 42. 2018년 7월 30일
 43. 2018년 8월 5일
 44. 2018년 8월 10일
 45. 2018년 8월 15일
 46. 2018년 8월 20일
 47. 2018년 8월 25일
 48. 2018년 8월 30일
 49. 2018년 9월 5일
 50. 2018년 9월 10일
 51. 2018년 9월 15일
 52. 2018년 9월 20일
 53. 2018년 9월 25일
 54. 2018년 9월 30일
 55. 2018년 10월 5일
 56. 2018년 10월 10일
 57. 2018년 10월 15일
 58. 2018년 10월 20일
 59. 2018년 10월 25일
 60. 2018년 10월 30일
 61. 2018년 11월 5일
 62. 2018년 11월 10일
 63. 2018년 11월 15일
 64. 2018년 11월 20일
 65. 2018년 11월 25일
 66. 2018년 11월 30일
 67. 2018년 12월 5일
 68. 2018년 12월 10일
 69. 2018년 12월 15일
 70. 2018년 12월 20일
 71. 2018년 12월 25일
 72. 2018년 12월 30일
 73. 2019년 1월 5일
 74. 2019년 1월 10일
 75. 2019년 1월 15일
 76. 2019년 1월 20일
 77. 2019년 1월 25일
 78. 2019년 1월 30일
 79. 2019년 2월 5일
 80. 2019년 2월 10일
 81. 2019년 2월 15일
 82. 2019년 2월 20일
 83. 2019년 2월 25일
 84. 2019년 2월 30일
 85. 2019년 3월 5일
 86. 2019년 3월 10일
 87. 2019년 3월 15일
 88. 2019년 3월 20일
 89. 2019년 3월 25일
 90. 2019년 3월 30일
 91. 2019년 4월 5일
 92. 2019년 4월 10일
 93. 2019년 4월 15일
 94. 2019년 4월 20일
 95. 2019년 4월 25일
 96. 2019년 4월 30일
 97. 2019년 5월 5일
 98. 2019년 5월 10일
 99. 2019년 5월 15일
 100. 2019년 5월 20일
 101. 2019년 5월 25일
 102. 2019년 5월 30일
 103. 2019년 6월 5일
 104. 2019년 6월 10일
 105. 2019년 6월 15일
 106. 2019년 6월 20일
 107. 2019년 6월 25일
 108. 2019년 6월 30일
 109. 2019년 7월 5일
 110. 2019년 7월 10일
 111. 2019년 7월 15일
 112. 2019년 7월 20일
 113. 2019년 7월 25일
 114. 2019년 7월 30일
 115. 2019년 8월 5일
 116. 2019년 8월 10일
 117. 2019년 8월 15일
 118. 2019년 8월 20일
 119. 2019년 8월 25일
 120. 2019년 8월 30일
 121. 2019년 9월 5일
 122. 2019년 9월 10일
 123. 2019년 9월 15일
 124. 2019년 9월 20일
 125. 2019년 9월 25일
 126. 2019년 9월 30일
 127. 2019년 10월 5일
 128. 2019년 10월 10일
 129. 2019년 10월 15일
 130. 2019년 10월 20일
 131. 2019년 10월 25일
 132. 2019년 10월 30일
 133. 2019년 11월 5일
 134. 2019년 11월 10일
 135. 2019년 11월 15일
 136. 2019년 11월 20일
 137. 2019년 11월 25일
 138. 2019년 11월 30일
 139. 2019년 12월 5일
 140. 2019년 12월 10일
 141. 2019년 12월 15일
 142. 2019년 12월 20일
 143. 2019년 12월 25일
 144. 2019년 12월 30일
 145. 2020년 1월 5일
 146. 2020년 1월 10일
 147. 2020년 1월 15일
 148. 2020년 1월 20일
 149. 2020년 1월 25일
 150. 2020년 1월 30일
 151. 2020년 2월 5일
 152. 2020년 2월 10일
 153. 2020년 2월 15일
 154. 2020년 2월 20일
 155. 2020년 2월 25일
 156. 2020년 2월 30일
 157. 2020년 3월 5일
 158. 2020년 3월 10일
 159. 2020년 3월 15일
 160. 2020년 3월 20일
 161. 2020년 3월 25일
 162. 2020년 3월 30일
 163. 2020년 4월 5일
 164. 2020년 4월 10일
 165. 2020년 4월 15일
 166. 2020년 4월 20일
 167. 2020년 4월 25일
 168. 2020년 4월 30일
 169. 2020년 5월 5일
 170. 2020년 5월 10일
 171. 2020년 5월 15일
 172. 2020년 5월 20일
 173. 2020년 5월 25일
 174. 2020년 5월 30일
 175. 2020년 6월 5일
 176. 2020년 6월 10일
 177. 2020년 6월 15일
 178. 2020년 6월 20일
 179. 2020년 6월 25일
 180. 2020년 6월 30일
 181. 2020년 7월 5일
 182. 2020년 7월 10일
 183. 2020년 7월 15일
 184. 2020년 7월 20일
 185. 2020년 7월 25일
 186. 2020년 7월 30일
 187. 2020년 8월 5일
 188. 2020년 8월 10일
 189. 2020년 8월 15일
 190. 2020년 8월 20일
 191. 2020년 8월

10월 10일 수요일
 11월 10일 수요일
 12월 10일 수요일

세상에 이 개새가 처음 뵈세라? 허구 허구라 다내야하니 2월
 두광생이 소리가 잠시 허미. 저들... 어디로
 저 스님 인드 보카라는가, 임불 줄 기다리게... 2월

아... 미안해요. 새벽이 몹시 안맞아서 그러거든요.
전혀... 전 관상도 안맞
하루하루
느낀다고

20/10/2020

1. $\frac{1}{2} \times \frac{1}{2} = \frac{1}{4}$ $\frac{1}{4} \times \frac{1}{4} = \frac{1}{16}$ $\frac{1}{16} \times \frac{1}{16} = \frac{1}{256}$ $\frac{1}{256} \times \frac{1}{256} = \frac{1}{65536}$ $\frac{1}{65536} \times \frac{1}{65536} = \frac{1}{4294967296}$

1. 1월 1일 ~ 1월 31일
 2. 2월 1일 ~ 2월 28일
 3. 3월 1일 ~ 3월 31일
 4. 4월 1일 ~ 4월 30일
 5. 5월 1일 ~ 5월 31일
 6. 6월 1일 ~ 6월 30일
 7. 7월 1일 ~ 7월 31일
 8. 8월 1일 ~ 8월 31일
 9. 9월 1일 ~ 9월 30일
 10. 10월 1일 ~ 10월 31일
 11. 11월 1일 ~ 11월 30일
 12. 12월 1일 ~ 12월 31일

저 연봉 안까지 끝났지 모를 모르느니라...

정수기 있어도 되나? ~~그러나~~ 있다

[illegible]

(Handwritten notes in Korean)

No. _____ Date _____
 2. 아래 6시 전까지
 신청서 양식에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서 양식?

물주머니 or Hot pack을
 2/3로 채워 넣으세요.

우리 대학 FM에
 참여. 18

선사장님 돈 준비하러!!

4:50 ~ 5:00 108도.

5:00 ~ 5:10 미리 / Rest

08:00 Renew

2020

3월 28일까지 4월 2일을 기해

필름 노트가

078/-0701-1/11 450/ 2
0.450000

영수증. 장자기가

$\frac{1}{\sqrt{2}} \begin{pmatrix} 1 & i \\ 0 & 1 \end{pmatrix}$

8+11 45:00

09:45 @ 129-621

18시 1기 吳昌 尹仁吉 趙相 丁世 李正

ଅବସ୍ଥା କ୍ଷତି

14시에 정전 불이 나고.

Без права - зз

2월 2일 수요일

$\frac{2}{v} = \frac{1}{v_1} + \frac{1}{v_2}$ $\frac{2}{v} = \frac{1}{v_1} + \frac{1}{v_2}$ $\frac{2}{v} = \frac{1}{v_1} + \frac{1}{v_2}$!!!

음박지를
바라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따라다니요.

아까 별자가 엄청 자라분하니까
이도 분이 참으로 해 주셨어요.

해서 보았으니 얼마나 깨끗해
그요.

위에만 간단하게 쓰기만 했어요

눈은 분홍이 핑크를 좋아해서요. ㅋㅋ



하트 너 좋아해요

피워야만 더 드릴까요

그러나 저에게 주시니까

복 받을 때가 되고 자요.

영웅이 꼬리표에 하트 하나 그려

반바닥나 허리부분기

No. 13 Date

등전파도 불이세어.

등전파도 불이세어.
 불이세어.
 불이세어.

안테나도 불이세어.

주요 불이세어.
 불이세어.

지상과 함께

그분 남양을

다양 비탈길에서 — 내가 음

1시간 운다 (수/노시간)

등전파도 내일 아침 7:00시

(1311)

주지해가르네

*상상하 하 등전파도.

대일/대장남. 대장남. 은. 기드 등전파도...

대일/대장남. 대장남. 은. 기드 등전파도...
 대일/대장남. 대장남. 은. 기드 등전파도...

대일/대장남?

PENPIA

2시간

12/4(토)

(17)

$17 + 23 = 40$

No. Date

장도방 장강장 무우국

고추장. 대파무침. 유부조림. 파니유부볶음. 우유김치.

브로콜리. 양상추. 생파. 생무

호박. 바나나. 토마토. 우유. 프라미스 크림

지금 이리 7시에 개와 잠 정리하고
대청간 해준 10시에 일어나 나가자
어떨지?

오늘 라디오 뉴스 취미방송을 모두 들어서

취미정리

우리가 생각하면 같아.

인간은 말이 가장 좋아.

소름

→ 자라면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배워서
아래 바닷물 "수소" 불도 일으키는
할려고하는

가게

큰 양을

→ 생각할

너무 잘 자는 거라.

오늘 12:20
12:30

이제 바닷가 쪽에서 20까지 내려

아래 10:30 바닷가에 물이 98%

너무 바닷가 쪽에서 물이 많아 양파가 안 나

이제 바닷가 어떤 바닷물이 실수로 12리 정도

특히 바닷물 속에서 실수로 아냐.

두번이나 들어서 개.

또. 무서웠는데

바닷물 속에 있나.

준근 숙인. 너무 잘 자자라고.
새벽 2시 10분이나 —.

준근. 중년 25사 1명 편으로 하시오.
바스락 바스락, 아니 너무 나눌이로 —
그리고 자. 잘 못해서 —
이때 " 새소리. 물소리 새소리!!

새소리바스락
5-12 새소리바스락 새소리 2:23분
하루 무지워서 시계 볼.

자고 자서

내가 두시에 깨서 화장실 갔다가 (바스락 바스락 소리)

사실 목숨이 문문하고 기이 잠잠한 목숨이 있었어.

내가 영화 사내로. 준비를 너무 잘 하니까.
은 새소리. 영화 소리. 안났어. (준근준근이~)

화장실 히라배지 만라고 했는데

낮에 쪽 더운데 신중이 뜨기위해서
이따 자꾸기 깃들려나오.

낮에는 맨날아오.

신중이 무지하더라. 냉채가 나서
신중이 만져 보니 뜨거웠어.

다들 뒤집어 봤어.

아침에 뭘 안 했으니

No.

Date

후배님 향해 7배 후 사랑함이
어디 할까요?

오늘 11시 이후 뭘야 잠긴 하신분

40분 잠긴

아직 그 목소리/기-

20분 휴식

치킨은 좀 ~~맛~~ 다 하

하셔분 하세요. 40분?

혼자 하가운 밥 드시니 눈맛이 보기도

오늘 영양은 어떤 스낵들이 영양이

강라지 이쪽은 온 듯 하네요.

그분들이 영양을 취하셨으니.

어제 밤늦게 문짜로 스낵 들었음.

습윤기. ~~이후~~ 누아

하루전게 ~~함~~ 하신분은

오늘 드리기 김 태하도 같다.

① 일하는 것이 쉬기 같다

② 제니가 사탕을 하고 (펜트릭)

③ 그녀가 내게 이빨을 씹는다.

· 번기 립은 했으며 볼에 볼을 맞추니
개 낫아

「殺佛殺祖殺霜殺月
殺我」

— 金斗文 嘉一 周 —

1/5

매 ^후 10분에 준비하시죠?

구경 가지 않나?

네. 잠잠 봤어요?

네. 3번 하고 가실거요?

2019. 12. 26 일.

No.

Date

여연하. 이노화. 개재중

- 중간에 (가시려고) 당아눔도 개물미 얻기위함
이야.

- 3시 50분 현재 아직도 열린인 함
↳ 제발, 연타마는 30분야
아자 아자 타이네!!

새벽강라

5시 11°C 현재까지 시정함

- 현재 저녁 6시 (1시78마미 5°C가
현재가94C) 하~

저녁에불붙고 리기

리나 리 불여.

미리 부쳐나.

6시 30분 4.8°C / 습도 81%

6:45 3.6°C 83%

7:50 2.6°C

8:50 1.8°C 92%

9:50 1.3°C

10:50 0.1°C

창간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열람한다? Date

문제가 있네요!

내 컴퓨터 안켜져서 그냥 놓아둘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인 매

새벽
4:30 -5.1°C

5:00 -4.8°C

고려대학교?

무엇을이런 상태가 X

11:00 -5.0°C

아침에 햇빛을 받아야 하네.

LA 햇빛 몇개 냉각이런

주위를 보면 한눈에 안보인다 (바람)

< 코딩을 해봐도 안되니까? >

-5°C 이하에 -18°C는 줄음

목탁수도 고드름.

천도 고드름

목형도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수제고드름 ~

초반 마치고 제방 준비 완료.

제가 연상 지공 제방 중야지.

다음 연분들 모두 모두 새해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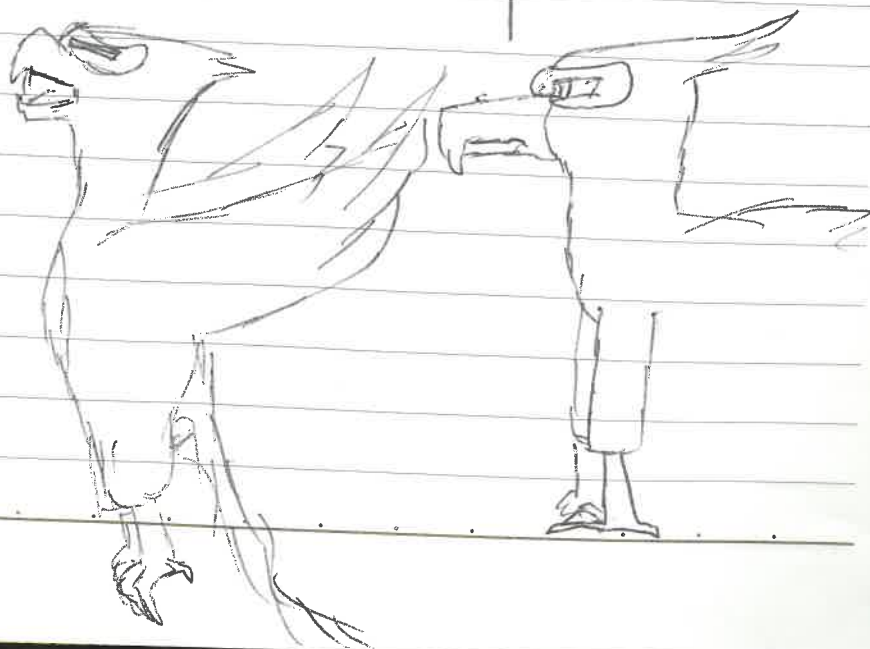
무궁히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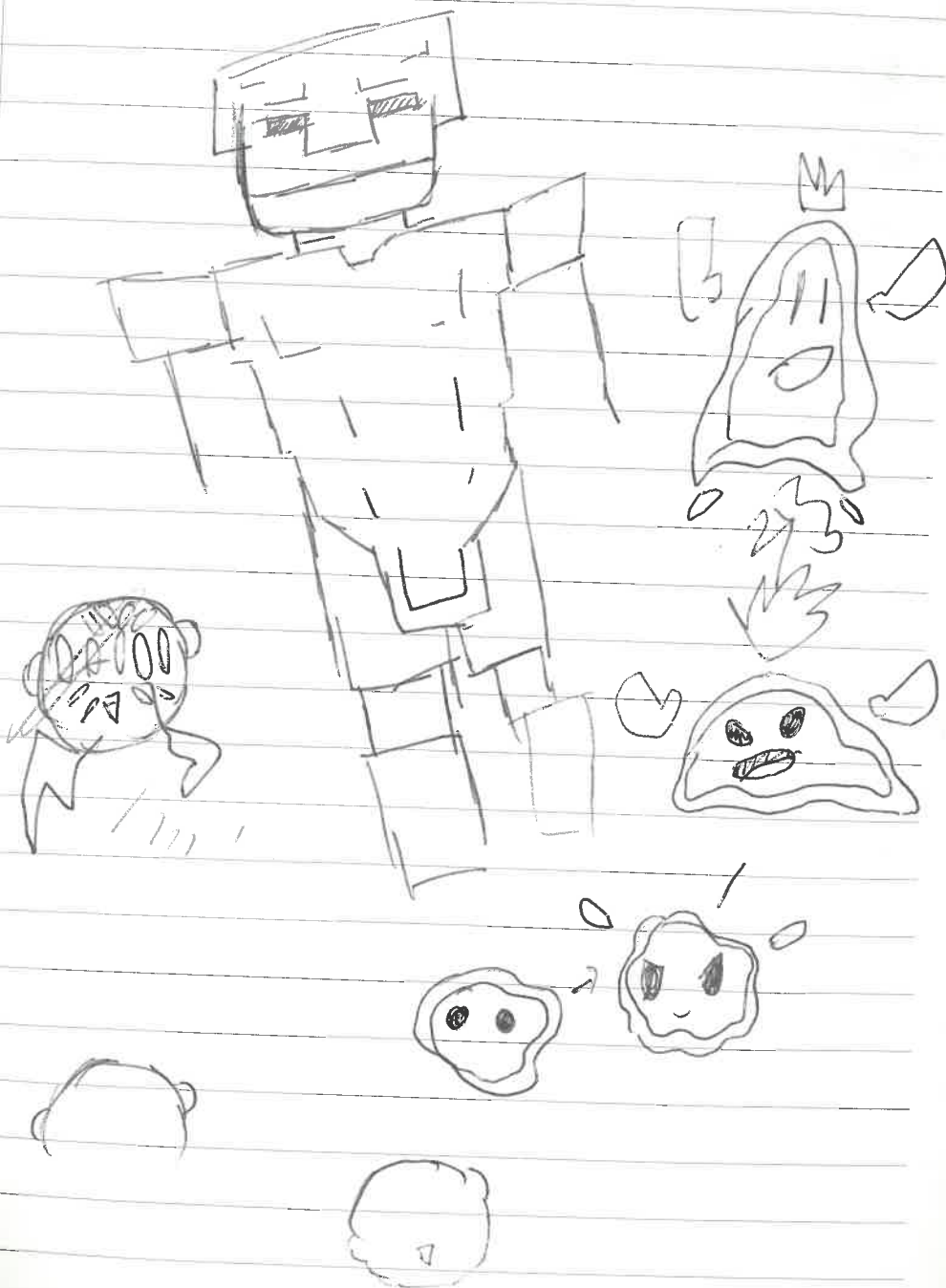
* 하루도 거르지 마는치 인심은... ..

9분의 드림... 대단하신 스승님들 ♡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 ♡

다들 잘하시길 인심은기 하시니하시니.





앞으로 스님 존경스럽습니다
 저절로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물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몸은 부끄러운 몸수 매트가 있음에 감사하고
 마신다 하는 추억은 아끼기만 친목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고행길에 걸려왔는데
 귀환 명령하곤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9시 40분에 ^{10분} 휴식하고

50분에 ^{10분} 휴식하고 문연과 함께

수업을 합니다.

40분에 ^{10분} 휴식하고

수업을 합니다.



문연과 함께 수업합니다

π. π

나는 누구인가?

No.

Date

12월 21일

드디어 오늘 일제 했습니.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 했는지 막상 무언가에
임박한 심정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 들었.
무엇이든 끝까지 무한하게 최강한듯하게
무엇이든 기쁘게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1시 정전

5시간

6시 제막예배

7시 찬양예배

11시 예배

12시 자유회

1시 기성

4시 50분 드림

5시 새벽예배

7시 예배

8시 찬양예배

11시 양

어려운 인연이 날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모르겠지
이이 난 여기이 있다.

부여서만 있던 처한 막상 듣기때 많그래로
무엇이다.

내 삶이 이만큼이 또 있을까?

라지 있지 않은 이 순간 나는 내 삶이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아서 바나며 우겨 3시의 인연도
변환이 오기/듯...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이든 것을 무엇인가?

세상 모든일을 인연이라고 들었는데

어려운 인연을 주인이 귀한 자리에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 해방령의 인연이 아니었을까?

무엇이든 주신듯 지내 주,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변해왔을까? 기대된다. !!!

해수면이 이렇게 깊어졌으니
 강물이 이렇게 높아져야
 가능하겠네요.

남미안 안으로 뺄 듯 합니다...

(시정) 맑아졌습니다 12.31 밤.

1/2시 최고 온도 약 2~3시 19°C 습도 0%

기온하강속도 약 4~5시 19°C → 14°C 5°C ↓

" 5~6시 14°C → 7°C 7°C ↓

6-7 예보로 야마하를 건너 대/리만?

커다

강물에 기온이 ↓

기온상승속도 세팅 → 이미 세팅?
 ~1.1 | 2번?

강물 온도 12월 31 ~ 2월 까지 기록

대리점에서 1월 20일 1월 21일 2월 1일

강물 온도

1월 20일 2월 1일

강물 온도

2월 1일 2월 2일

아침에 처음에 바람이 강하게 (우리가)
 제게 왔는데 5시30, 6시, 6시30분

알람!

7시50분 0도 습도 50%

처음 재기? 오느X.

제가 고온이 ↑
 따뜻함 해가 뜨겁게 느껴짐

23시 최저온도 -3°C

12/28

4시 5분 -5°C

터무니없게 높은 냉기를 가두니
 10시 0°C
 10시50 7°C 습도 93%

23/46 반절재 시간

허기 허전함 수습해야 리드미,

개는 반쯤 수면 2번 깨움.

유도동물과 장악 (5h 16h)
 10시 유출로 1 안아있어

12/4 그날같이 3인의 체험이
 영원히 기록되어 감사합니다.
 빛에서 기도가 안에서
 오가나 힘이 되느니 감사합니다.
 주스로 아홉 번째 원인처럼
 위해 하는 사랑합니다.

9분의 손으로 무사 귀향을 기도합니다.

· 경험해 보니 9분의 부처님이
 얼마나 큰 위력으로 정사에
 참여하는 계시의 느낌이 나옵니다.

저희 3인도 더욱더 강력해지
 스님들이 사랑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보람이 되겠습니다.
 나무새가 되겠습니다. 나무새가 되겠습니다. 나무새가 되겠습니다.

19년

No.

Date

12월 29일 일요일 12시

봉은사 신도회

① 문수왕 (최은주)

② 능인왕 (정혜선)

③ 청운왕 (임미경)

④ 권여왕 (황보숙)

★ 한글문화 발전 공헌을 위하여

★ 모든 스님들의 건강을 발원하며

★ 봉은사 중창 ~~발원~~ 불사 발원

★ 원명주지 스님 건강을 발원하며

부처님 한량 없 가피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1박 2일간 부처님을 따라서
9분 큰스님들을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우리 모두 화이팅 !!!

봉은사
신도회 회장단
만세!!!

수국사. 두원사
일요 기도 정진하신 신도님들
사부대중 함께 큰소리로 봉은사.
응원해 주심에
신심이 저로
두손 모아 감사 인사 올립니다 ()

처음 입방했을때는 추운방기에
몸이 적응 못해....

제간 참선후, 이제 옷을 한겹씩
벗습니다. 참선연기라... !!!

외호대중 신도님들의

힘찬 응원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한편 뭉클해 집니다.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16:00 pm: 13°C입니다.

배꼽 밑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서

들숨. 날숨 호흡속에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상월선원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편안하니

저는 만 22시간 명맹정진
계획입니다

3분 부회장님들은

프로그램 대로. 각자 논리에 맞게
수행 하시길

★ 단전에다 마음을 으쓱이 집중해서
수행 정진 하시길요 (하두있는분은 하두참구)

내일 천막 무등산 나설때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성복 합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서

17:53, 9°C 입니다.

氣丸

오후부터 내리는 비가

참선하는 우리들을 독려하는 듯
귀를 즐겁게 해주는 듯

7°C

밤이

만 10시간을 수행 정진중

상월선원 기온이 정말 좋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55분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아침에도 금식 했는데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정신도 너무나 맑고

좋은 컨디션 입니다. ()

4:50 일어나서
다시글 정전 시작,

나에 대해서
북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소리가
반갑기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6°C 춥습니다.

방새 청야정간

냉기. 너무 추워서

어금니가 흔들. 이가탄 환단 먹습니다

햇팩 없이 견뎌내

냉장고가 따로 없습니다

19년 12월 30일 월. 오전 10시

No.

Date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 4명 무사 원만 회향

밤새 차차운 냉기와 맞서며

꽃팩 도음없이

만 22시간 철야 수행 정진에 임했습니다

이- 뭇고. 내안의 불심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9분 스님들의 건강발전. 원만회향을 빌면서

상월선원 1박2일 천막 무분관 체하는

회향합니다. 응원해주신 이준대중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창은성 임미경 두손드립니다

만 11시간 여법하게 수행 정진에 임하신

문수원. 정혜선. 홍보숙 부회장님께

큰 박수 보냅니다

는 하셨습니다.

1박2일 제헌정권

하기 해주신 9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원사 주지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정권 동참하신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9분 선생님.

크신것 이주사님보세
능인성 함장 올립니다.

불기 2563년 12월 30일

무문관 체험 정진 21시간째.

잠시 세상을 잊고

정진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임미정, 정혜신, 최은주

봉은사 부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상월선원 도량에서 용맹정진 중이신

9분스님께 큰 박수 올리며, 최향하씨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박 2일 체험정전 >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무관에 정진하신 < 9분의 >

스님들께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은사 주지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과로써 . 라시습. 자공심을

갖고 열심히 화성화를 해야

집다는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봉은사 부회장님 < 3분 > 감사합니다

스님. 큰 뜻 나누시길 기원드립니다

< 문수월 항강 >

주머니 ^{자습} 넣어 놓으면 매우 깨끗해짐
(약 20시간 이상 지속)

심정리 및 원격 하근

귀를 열고 귀에 한 잔 하면서

해풍이 느껴보자!

< 기해년 해넘이와 경자년 해맞이를 하며... >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시작된지 벌써
51물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기해년을 보냈던 간밤인 하자가 막혔습니다.
온도계는 -7.5°C 를 가리켰고 체감온도는 영하10도
넘었습니다.

1박 2일간의 매우 짧은 체험이었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인간의 정상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름본 스님들의 건강이 무척 열려됩니다.
무탈하게 원만회향 하시기를 삼보 전에 엎드려
빌고 또 빌어 봅니다.

상월선원 정진결사!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온 세상 평화결사!

상월선원 무문관 체험동참자

동국대 백승주 김영
김해익

2020년 1월 6 ~ 7일 무문관 체험

과천 연국마을에 매곡 토요일이다 천다정원으로
다저전터라 상원선원이라는 글자가 큼직했다

천다정원리에서 목민. 저녁이후 끝날과
동시에 근처으로 앞날 아침까지 이루어진리
반세 20년이 넘었다

누구보다도 9분의 어른스님의 마음을
알기에 매곡 월요일이다 관서하게 되었다

제 목신과도 9분의 어른스님께 기쁜 보내드리고
자 물며 물며 차나를 돌돌렸다

그러다가 한번 관서해 보느것도 관서한것
같이 신청을 하고 이곳에 왔다

수원에게 전기공사를 직접 운영하다
보내 밀리 숙제가 만만치 않았다

금한 일만 처리하고 이곳에

차분 운전하고 땀만 마음대로 뺀다
9월의 큰어른스님과 같이 정진한다는
라체가 땀났다

묘허스님께서는 절에서 7박 8일 참양하고
천야정진하는 마음이란 이곳에서 할수있겠지?
또 연극장에서 추위와 사무편의 천야정진
하는 마음이란 할수있겠지?

님들은 왜 힘들게 천야정진하냐고 하지만
나에게는 큰 원력이 있다

종학고에 전기가 들어와서 집이 전기
안들어오면 숙려하기 시작해서 절국인
것으로하고 전기공사 정각부터 시작해서
자갈은 직접 운반한다
전기공사에 발은 담근리가 벌써
2년째이다

이웃은 자기보다 관용이 많을수록
보시라고 원은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살다면 꾸준히
보시해 왔다 10억 보시하는 게 원이다

같은 말지만 지금까지 해왔듯이

몸이 닳는 데까지 해볼 것이다

생각은 너무도 간단하게 구정물에서

밥 건져 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부처님 가피

있었다면 이 세상 사상이 아님이다

자금은 아들은 좋은 직장 다니고

처사님도 좋은 사업하고 있다

작년 겨울에 관용이 많을수록 큰 기

회나 되어서 양이 많을 줄 믿는다

미리 염해서 전라도 무안 시군 군청에

나누기 보시곤 했었다
 그런데 사춘 6남매 형제가 무애가
 너무 좋았듯이 보시했다고 하니
 참아 먹은다고 했었다
 저희 처사님과 아들은 온대 보시곤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었다
 그런데 형제들이 부채질 해서
 라군까지 살면서 가장 큰 무부싸움을
 했었다
 그래서 이론을 하나부터 ~
 이론은 전심하고 마시작으로 처사님께
 받았는데 그에서 풀렸었다
 받음이 불쌍하게서 평상시 기도한 것이
 가버리고 죽음밖에 보이기만 했었다
 이 악플로 연극방으로 매국 편을 받아다
 전거갔다

부처님께 자는 이론을 하는 법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몸이 붙어 버리고 기다려 왔다

몸에 천하

① 처음에 전하는 것

② 두 번째 다리를 전하는 것

③ 세 번째 경공부

④ 네 번째 환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리산대부터 말하기 시작해서

몇 번은 했었다

그런 다음 사경은 천수경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별개의 세상은 하다가 이제는 법회경문한다

나는 맨 나중에 환신이라고 생각한다

비밀이 되고 정상에 가는 것이 제일

바라볼 수 있지만 전이해서 정상은 맛을 보지

그래서 나는 전이해서 정상을 갈려고 한다

이제는 정상에 올라가고 생각해서

환신으로 한다

2020년 1월 6 ~ 7일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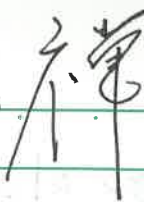
도반과 같이 무문과 제철은 끝났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열이 많은소님과 같이 환절기에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불사하시는 소님과 보신님 거처님이
감사드립니다

다녀- 좋은 도량에서 입방한때부터
늘오녀나 밤새 책장에 같이 놓은
바자 화사 바자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활발한 동행선.  No. Date 2020. 1. 7~8.
* - 가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3도의 스님들 함께
모여 활발한 동행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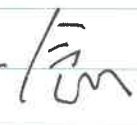
불자님은 기도나 정진, 정진대중 응원 !

불기에서 왕초 소리, 풍장미 소리, 뽕묵소리 ...

도량 내 도량씩 부더 예복 찬배악의 지극정성

기도 독개소리 ...

이런 저런 모든 인생 놀이 사귀는 이들까지

활발한 가운에 한두어 - 

이름도 애고, 물건도 애고 부처도 애고

이것이 무엇인가 !!

성생적 정진 잘 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인연 맺어준 도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PENPIA ...

2020. 1. 7 ~ 8. 水水

제출 맞이한 인연

- 1/4 시간 정진
- 칩 밤 취침
- 1일 유문관 정진 (폐관후배)
- 리우즈 정진

"매 땅에서 정돈까지"

상원서원 원한 성취 알현

나우 고라만야 바라문.

모든 비.사 정진대장 성불라심시요.
오로대장

2020 Date 1. 8 ~ 9

우치노 감사합니다.

처음 맞이한 1박 2일 운우환 정진

제법. 우치노. 스노 감사합니다.

갑기가 왔어.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그래도 이런 기화가 없었길 받아

왔는데. 무사히 가려고 다짐어

기화가 주버자면 흔한번 해보고

싶어. 장문으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갑니다. 감사하는 도반님.

모든 감사합니다.

2020. 1. 3 ~ 9

No. Date

오봉산 석굴암 집석전 신로리장님,

함께 수행간지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정복 정혜사 신로리장 안구용 항상

새벽녘이, 기상을 알리는 북악소리에 눈을 뜨니 맑은 하늘이
어둡고 기운은 분아 영상 1도

맑은 북악소리가 함께 트랑색이 이어지고, 아침예불까지 버치니
가슴속에서 활짝숨이 솟구친다.

이런것 알았으면, 그땐 3월 30일을 신정하는 거지 ^{3월} 아쉽다.
호산스님께서 풍채는 숙 결사를 하겠다는 뜻을 대 발리니
바람이 바닷길만

무릎과 허벅지 채움을 바치고 나니

해재일까지 부디 건강하게 하향하시기를 기원할 뿐이다.

그리고 어제 입실하자마자 이곳 상화선원에 댜로가든 와 주신
정혜사 신로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어떻게 재정을 하는지? 이 소음 속이 ... 대단합니다!
복아기요 소니 갓 소니가 아들이고 (정정정) 정정정

2개 가지로 오면 된

한 쪽에서는 명불승리, 한 쪽에서는 불승-창승리.

3가 이상하네 ~ 누구여?

정혜사 신로님

산기 투우공으로 댄!

같이 만만은 웃어 만만은

이제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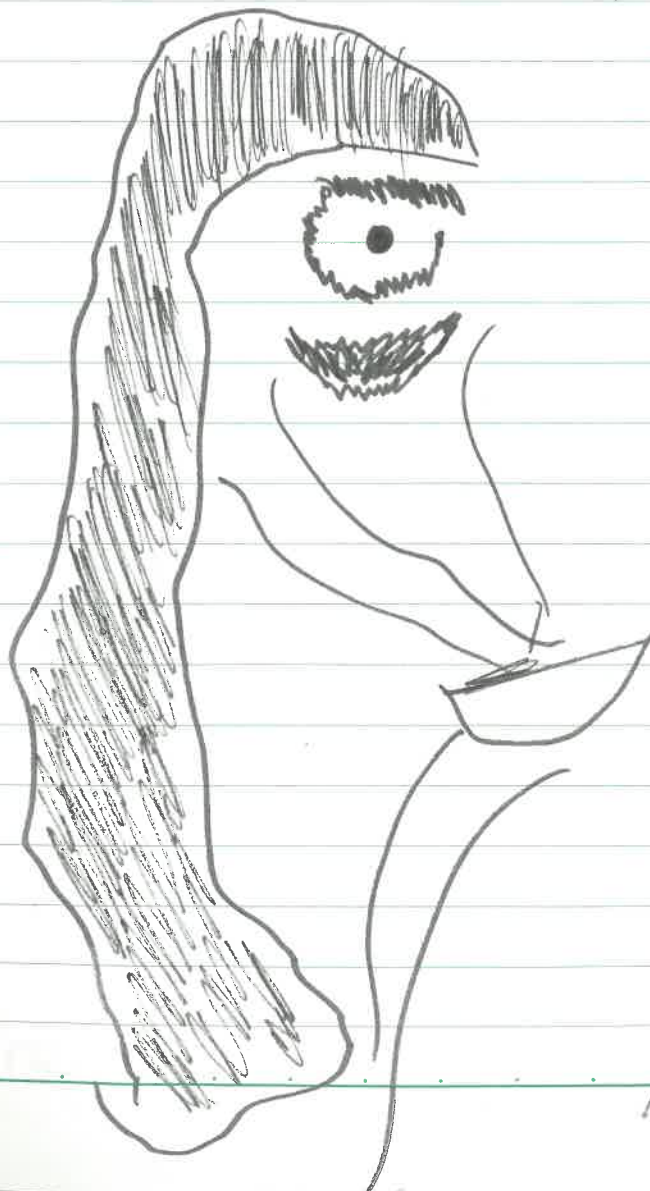
산기 투우공

산기!

이제

만만은?

산기 투우공으로 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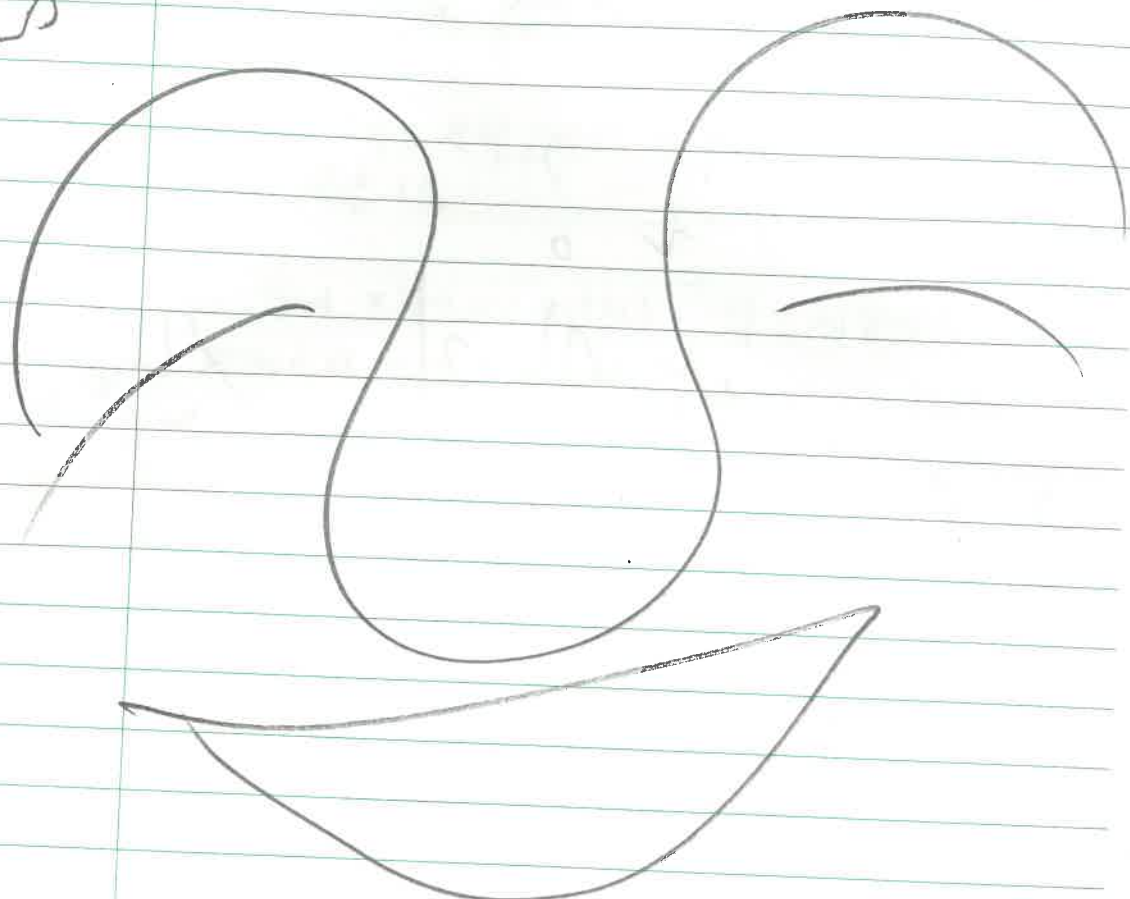


산기

22/5

원 12

4. 5L



상상하면 되어라!

세상과 사람은
하루하루!

悟. 心. 合掌

12시에 소등할까요? 스카/12시
12시에 소등하겠습니다.

모든 수고 하셨습니다.

최소 장비 정비함.

제일기 그레프 10시

이제부터 11시에 가요?

~~하루~~ 2/10일 일주일만
북이 2/10일만
사기꾼이 커피

북은 우리가 끄는가-요?

여기 스님 제사도 정권
하시는데 머리카락을
제일 심은 하신데
잘 보세면.

2020.1.18
07:00

리움북학 정 보사신, 김다
사동서지인.

頓悟無生法印

2020. 1. 19. 일.

장우영. 1시간의 휴식.

서원의

전 부진

한 우정

배려, 인내

😊 감사합니다.

보통 생명식 넘 맛있습니다고

너 맛있게 잘 먹었습니라고

감사합니다.

Date _____

아빠와 오랜만에 다시금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좋았어!

아빠 2주

② 산 다는 건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내 주 제

⑤ $\pi_1 \pi_2$ 나 $\pi_1 \pi_2$ 정답

정오한 가지/212

13:20
13:50 } of out
14:00

18:00 ~ 21:00

1910 5 (2/10)

23:00
24:00

04:00 } 기상.
기상나온(04:20)

04: ~~30~~ { 아-침여부 (드라/1/3)

05-100
S { ~~100~~ (M2L)

$\frac{1}{10} \times 100 = 10\%$

एच 224?

배가 아파

お

종이컵 컸나...

저 밑에서

다시 그 삶에서

다시고 싶어
무엇이 다
아냐?
아냐?

2월이
2월이 많이 아프니
가장 많이 아프니
가장 많이 아프니
가장 많이 아프니

이런 생각을 안하겠네? ㅋㅋ

해운
사 12

생각이

근데 아프다 보네
괜찮아 나지? ㅋㅋ
기진권 있다? ㅋㅋ

→ 사랑
이유? 우리 모두 이어질 수 있겠군 한 건
1. 믿음과 신로 인 것 같은데 그걸 단들이 주는 거
2. 사랑이잖아
3. 이제 4번 재해인가?

꼭 남네 곁에 나 좀 추운데 천년
사랑이 아니라 두루고 해는도?
사랑과 사랑의
사랑이 끈임없이 추위?
이 반복되며

지금에 아름다운 지금 사소한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나날들을 힘든 만큼 점솟해지는 느낌? 지금 마음
만들어준거리에 있는 잡것들을 비우고 좀더 중요한
가치관들로 새로이 채워야겠어.

정말 수해 잘 하네
대형이랑
처음엔 좀 좋아했지?

수해

아빠

문득 장생각이
떠나서 왔네.

내가 처음 생해 보니까
나에게 정말
무엇인지 생해가
생해가 생해가
생해가 생해가
생해가 생해가

7월 10일이야?

나도 처음 에는 그랬는데
시호를 하면서 마음은
비교도 없고
자도 더라고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힘든 것
하심다들 것 처럼

오늘 ~ 아빠보다
낫네. ㅋㅋ

공부도 공부지만 온몸이 쭈서서
미끼네라 힘들다.

15살의 사랑각인 본...ㅋㅋ

오후 5:25

난 '사랑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를 생각해 봤어. 부처님 말
대로 우리 이어져 있어. 그렇다면
사랑 역시 이어져 있고 반복된다는
게겠지? 그 많은 사랑을
준 만큼 온다는 거야 서로서로
를 사랑하며 많은 사랑을
주고 받는다면 그 많은 사랑들
이 끝없이 주고 돌아 서로서로
에게 돌아올 거야.

응애~

한시간만에

온도가

8°C

떨어졌다.

그니까

0°C

온도차가 많이 심해

바라볼때는

9월의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진짜 대인형...

아빠 하시는거

많이 주셨어?

네.

여기 말야

아빠.

처음엔 괜찮은데 돈이 없어서

떨어져서 많이 걱정하는데

사정이 좀더...

그치...

아빠 보내면 뭐 생각을 그러 하냐?

앞에 적어 놔줄게.

⇒ 엄청 친한데? 평생 친구가

답지 않게... ㅋㅋ

오늘 새다들 모습을 보네...

ㅋㅋ 가끔 자기한테 돌아 생각하면 것들인데

오늘 드디어 정리했어 그리고 더 잊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적었지!

예쁜 사자이다. 방금 목탁 소리

들었... 케블라자.

가서 시켜

아까 물어놓은 거 아냐?
싱긋~

이제 올해 중고 네? 중고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당자자 ㅎㅎㅎ.

중고 병을 꼭 중2에(만) 오는 거 아니냐...
감 사하기 때 감성 먼 훗날인 것 같아
그런 진작에 25년에 끝났지 ㅋㅋㅋ
25년에 담아가 뭐라 했을 때 대충 심었지?
아빠가

무르겠어 그 냥 그때는 민수가
심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봐도 좀 이뻐했음... ㅋㅋ

아냐~ 아빠 학창 시절과 비교하면 너
아주 모범 학생이지... ㅋㅋ
근데 아직도 여기 끌려온 것 같냐? ㅎㅎㅎ

을 처음엔 리창만 막 그려놔서
원치않은 경험에도 바늘이 있다는 말처럼
되게 나를 뜻깊은 경험 중이라고 생각해
꼭 원해서 온 건 아니지만 되게 괜찮고
리미 있거.

무엇 하면서 생각을 해봐하니
좀 새롭고 재밌을 듯... 이때?

무엇이 꼭 같은 경험이야?
아빠는 본인이 쓰시는 경험인데...

2년 지 몸은 괜찮은데
중 정도로 생각하지 못한
같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서

근데 밖에 너무 시끄러워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나?

몸 힘들게 심호흡 몇번하고 머리 비우면
진정되더라.

핸드폰 하고 싶은 줄야?

응 고건 괜찮은데
이것 3개월 할 수 있겠어?
나도 불가능 ㅋㅋㅋ
큰 스님들은 뭐 때문에 정진하십니까?
그러게...? 뭐때문인것 같은데,
아빠로 생각해 볼테니 같이 생각해
볼까.
오케이 나 좀 편하게 해서
바쁘고 일게.

들을 다나왔는데

수족냉증 때문에 손발이 시려워
간혹 나도 차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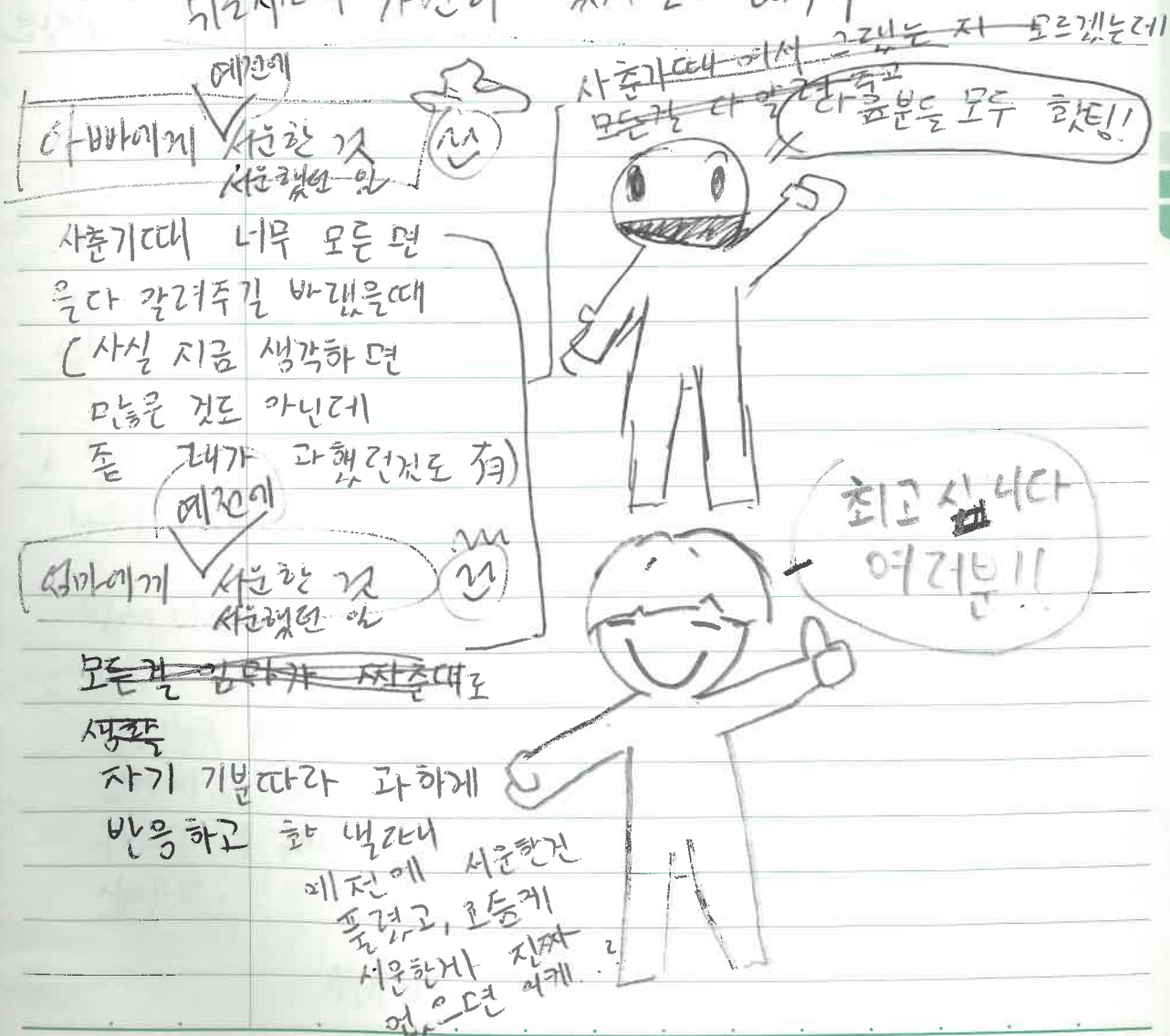
발은?

음... 차가운데서 침낭이

좀 넣고 있어야 겠지...

비영에 수족냉증이라 겨울이 힘들 거 ㅋㅋ

뒤로사라기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 ~



큰 끝이 시작되면 댕겨미 할래?

↳ 큰 끝 고난 찬송글래!

코히려 하면 담당할것 같아...

만대준 아바가 사웠잖아 일

승원이가 점점 커가는 일...

하루하루가 추억이 되어가는 게... 너무 빠른 것
아닌지

같은데. 이제 많아. 원이랑 옛 사진과 동영상은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지.

지금의 이 순간은 어느덧 추억이 되겠지.
너가 찬란했던 광학생 시절도...

이 무렵은 90일 이상하시느 스님들 9분께서
영에서 같이 수행하고 계시... 한테자.
27/27

아빠 깨워나 27/27 진짜 큰스님 9부대 단도나

세바지서가상 4시50분 예보

뜻은 있는데도 이상하게 정신도 없다.

다음 분으로 수행해야 하네

주머니에 깨워나 해나하자. 신

너무 걱정해 천천히 해주세요

구리 끝나고 양평해장국 먹자 55

22일

수요일은?

아름다운 뜨겁한 국밥 먹자.

2020.

2020. 01. 22 (수) ~ 23 (목)

윤정은 박유진 고완선

어제 늦게 잤어?

한.. 세시풍경? 뭘까 알겠지 리얼리티에
이것저것 하느라 하

밤에 너무 수고해서 수면은 아예
상한데서 아예 잠들지 않네..

그러게 생각하다가 다공사랑이 때문에
몸매장르데 정신 팔리게 한다면이야

나응응초치: 귀찮은 리드

벌써 리드서

그러게 이제 해볼거야(아

해볼거야 해볼거야

너네... 어썩...

ㅋㅋㅋㅋㅋ... 흥분하면 평상시

상대반

그거 안쓰냐고 그냥 물어볼거야

응 리드문 안쓰

무슨 생각하냐

순해 58(전)과 58(후)랑 58(주제/결론)

그러 리드한 생각 좀

해이

그냥 산물에 대해 넘쳐나고 느끼는거?

미생물에 느끼는

지리가 있는데 캄이 없네

음...



캄...

I miss you

마 이 어때

명명해

세시풍경 너가

수시로 되잖아? 이<

나는 잡념 덩어리를 꼭 다룰
개편과 함께 생겼던 큰일났다

나두... 위원이 장남이 장전과련해서
위클아보면 큰일난듯.

구구구 마행기, 알은 더 팔랑미.

보상받은 생활은 어떠어려워진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DIETARY

하하하하하

수업이 종료

A hand-drawn cartoon of a person with glasses and a mask, wearing a lab coat and using a pipette to add liquid to a bottle. The drawing is on lined paper.

내일
사진찍어야지 ㅈㅈ

 $\frac{3}{2}b$

* 0 세미터 1/2 2/3 4/5 6/7 8/9 10/11 12/13 14/15 16/17 18/19 20/21 22/23 24/25 26/27 28/29 30/31 32/33 34/35 36/37 38/39 40/41 42/43 44/45 46/47 48/49 50/51 52/53 54/55 56/57 58/59 60/61 62/63 64/65 66/67 68/69 70/71 72/73 74/75 76/77 78/79 80/81 82/83 84/85 86/87 88/89 90/91 92/93 94/95 96/97 98/99 100/101 102/103 104/105 106/107 108/109 110/111 112/113 114/115 116/117 118/119 120/121 122/123 124/125 126/127 128/129 130/131 132/133 134/135 136/137 138/139 140/141 142/143 144/145 146/147 148/149 150/151 152/153 154/155 156/157 158/159 160/161 162/163 164/165 166/167 168/169 170/171 172/173 174/175 176/177 178/179 180/181 182/183 184/185 186/187 188/189 190/191 192/193 194/195 196/197 198/199 200/201 202/203 204/205 206/207 208/209 210/211 212/213 214/215 216/217 218/219 220/221 222/223 224/225 226/227 228/229 230/231 232/233 234/235 236/237 238/239 240/241 242/243 244/245 246/247 248/249 250/251 252/253 254/255 256/257 258/259 260/261 262/263 264/265 266/267 268/269 270/271 272/273 274/275 276/277 278/279 280/281 282/283 284/285 286/287 288/289 290/291 292/293 294/295 296/297 298/299 300/301 302/303 304/305 306/307 308/309 310/311 312/313 314/315 316/317 318/319 320/321 322/323 324/325 326/327 328/329 330/331 332/333 334/335 336/337 338/339 340/341 342/343 344/345 346/347 348/349 350/351 352/353 354/355 356/357 358/359 360/361 362/363 364/365 366/367 368/369 370/371 372/373 374/375 376/377 378/379 380/381 382/383 384/385 386/387 388/389 390/391 392/393 394/395 396/397 398/399 400/401 402/403 404/405 406/407 408/409 410/411 412/413 414/415 416/417 418/419 420/421 422/423 424/425 426/427 428/429 430/431 432/433 434/435 436/437 438/439 440/441 442/443 444/445 446/447 448/449 450/451 452/453 454/455 456/457 458/459 460/461 462/463 464/465 466/467 468/469 470/471 472/473 474/475 476/477 478/479 480/481 482/483 484/485 486/487 488/489 490/491 492/493 494/495 496/497 498/499 500/501 502/503 504/505 506/507 508/509 510/511 512/513 514/515 516/517 518/519 520/521 522/523 524/525 526/527 528/529 530/531 532/533 534/535 536/537 538/539 540/541 542/543 544/545 546/547 548/549 550/551 552/553 554/555 556/557 558/559 560/561 562/563 564/565 566/567 568/569 570/571 572/573 574/575 576/577 578/579 580/581 582/583 584/585 586/587 588/589 590/591 592/593 594/595 596/597 598/599 600/601 602/603 604/605 606/607 608/609 610/611 612/613 614/615 616/617 618/619 620/621 622/623 624/625 626/627 628/629 630/631 632/633 634/635 636/637 638/639 640/641 642/643 644/645 646/647 648/649 650/651 652/653 654/655 656/657 658/659 660/661 662/663 664/665 666/667 668/669 670/671 672/673 674/675 676/677 678/679 680/681 682/683 684/685 686/687 688/689 690/691 692/693 694/695 696/697 698/699 700/701 702/703 704/705 706/707 708/709 710/711 712/713 714/715 716/717 718/719 720/721 722/723 724/725 726/727 728/729 730/731 732/733 734/735 736/737 738/739 740/741 742/743 744/745 746/747 748/749 750/751 752/753 754/755 756/757 758/759 760/761 762/763 764/765 766/767 768/769 770/771 772/773 774/775 776/777 778/779 780/781 782/783 784/785 786/787 788/789 790/791 792/793 794/795 796/797 798/799 800/801 802/803 804/805 806/807 808/809 810/811 812/813 814/815 816/817 818/819 820/821 822/823 824/825 826/827 828/829 830/831 832/833 834/835 836/837 838/839 840/841 842/843 844/845 846/847 848/849 850/851 852/853 854/855 856/857 858/859 860/861 862/863 864/865 866/867 868/869 870/871 872/873 874/875 876/877 878/879 880/881 882/883 884/885 886/887 888/889 890/891 892/893 894/895 896/897 898/899 900/901 902/903 904/905 906/907 908/909 910/911 912/913 914/915 916/917 918/919 920/921 922/923 924/925 926/927 928/929 930/931 932/933 934/935 936/937 938/939 940/941 942/943 944/945 946/947 948/949 950/951 952/953 954/955 956/957 958/959 960/961 962/963 964/965 966/967 968/969 970/971 972/973 974/975 976/977 978/979 980/981 982/983 984/985 986/987 988/989 990/991 992/993 994/995 996/997 998/999 1000/1001 1002/1003 1004/1005 1006/1007 1008/1009 1010/1011 1012/1013 1014/1015 1016/1017 1018/1019 1020/1021 1022/1023 1024/1025 1026/1027 1028/1029 1030/1031 1032/1033 1034/1035 1036/1037 1038/103

< 1961-71 → 1971년 8월 15일 >

$\langle \text{4 BN} \rightarrow \text{현재 개수 32} \rangle$

$\langle \frac{1}{2}, 94 \rightarrow$ " 25)

~~Handwritten scribbles~~

뒤쪽에서 듣는 여자를 목선
안아줄게?
...

아니... 그게이거 뭐지야,,?

다라서 나는 노리아니었는지

우 기분이든 뒤쪽은 인제

무엇을 바꿀까? 무엇이든

이름은 조금 늦었다 무엇까지

나도 물가 관련 느낌에서 또한 기분이되어

물라시느 꼴까지 ...

2. 국외로 영주하는 분은 국외귀환비

2월 2일

목탁소리에 맞추어 기쁘게 인사합니다. 큰소리...

7L73이 괜찮 Good

2/6 나는 ~~한번~~^{수많은} 놀아신걸까?

~~한글~~ 한글 해설 방법

이러 상월생물은 아플낚이까지

그러지 않을까?

7월 7일 ... 우리 0세 시작까지 시간만 $\frac{6}{5}$

외양 ^v^ 새만금방 가는듯 싶다

내의 집중력: 의의로 길구만

020422Z

나는 지금 배가고파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 생겼네요

나 크라이스트 도트. 아가터 생김

우리나라의 경제 특징인 저가 경쟁

3월 8일

악시 막창은 클라스... ㅋㅋㅋ

그리고 난 아직도 여자를 욕하기
신경쓰인다... (이바리)

↑ 귀엽다 ㅎㅎ

나도 살경부여하 느낌뿐이나

여자를 욕하듯음 해나안이라도

끝났으면... 드대히 뽐내시는건지...

밤에는 공방리 안까지 가든 줄알았는데

밤에도 굉장히 신중함만...

ㅋㅋ 맞아.. 근데 10시 전후로는 조용해질걸

나 야경할 때 그랬던 거 많음.. 물론 2남매

법당 / 마늘불 모두 아무도 안계셨지만..!

① 2 방금 '마하만카 비라말' 까지 알아들었어

은... 명불타는 건가 그럼... 잠자버도 드시겠는데..?

How Me The ~~Buddha~~
 부다!

부처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Buddha~~

Buddha? Ba

절대 박 나든 까짓음 ~~Buddha~~ 가 들어간 말인데

어쨌든 까짓음... 진짜 뭐지... 분명 알았는데..ㅠㅠ 뒤가려조라...

Buddha 맞을거야 나로 밤음 생각남 ㅋㅋㅋ

Buddism ~~Buddist~~ Buddhist!

Korea Buddhist University Ferderation

ㅇㅇ...!!

민니 몸상태는 어떠 감기인데 거?

응응은 괜찮네

편안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가

목이 살짝 간질한 거 빼면 그정도

고민할 일과와 걱정할일이 없네

ㅋㅋㅋㅋㅋ 다행이다 그래도...

내일 나가서 찍고야

강기약사먹어 꼭 !!

민니만 만나면 내가 약에서 사와

민니한테 주어버릴거야 원심임.

아니ㅋㅋㅋ 그런데 그 다정한 형제끼리

티리플루 사먹을게.. 집에 있는 거

다 떨어졌어 어차피 사야함 ㅜㅜ

내일 잠먹고 ~~투~~ 비로 드문

기승한거야! 완한번인리... 뭐가...

다... 진짜 예바... 집에 명찰을

만들러가야한다고 바로가고싶다..

ㅇㅇ? 몰작히 1박2일 밖에치렀는데

뒤가려조라...

ㅋㅋㅋ 내일 가봐야알겠지

근데 왜래도 될거야 아마...ㅇ

민니, 일만 다들하면... (물론 기승이
높아지는 말)

... ㅠㅠ 사랑해 0

< 하루 9시부터 해질까지 35분까지 쯤 2°C이다. >

추위는 어떻게 할까

진짜 미안한데 눈꺼풀 안쪽에 이끼 넣어서 볼까?
 아니냐?  고마워 ♡

충진되어 있는 거 같아.

그럼 언제?
 봄은 언제쯤

지금 대방동 근처 시간 5:50 이 분기
 5:50 End.
 우는 나시 6:00 — 시작

(2월 11시 4분)
 지금 -0.5°C

한데! 전이 제일 춥다고 해서 왜냐
 비미 한가 떠있네 미끄...

ㅋㅋㅋ 눈이 너무 세잖아 어쨌든 방보다 추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이라 기분이 더 찡찡한 것 같네요 !!

지금 한번은 봐주세요...
 기온변화

1월차	6-11시	0°C	2월차	12시	-0.5°C
	6시	3°C		9시	0°C
	9-10시	2°C			

짧은 기적이 동창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번 다시 경험하지 못한 ~~원격~~ 원격인 기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른들에게서 몸 건강히 하세날까지 정진하시길 - (-) -
 재가복자들로 많은 자리, 시키는 곳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더 정진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곧 수행시간이 올 것입니다.
 Peace 기적이 남을 기 같습니다. ^_^ -무어 無 無-
 ㉠ 다음을 과녁!!!

뜻 깊은 체험에 동창하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될까?
 바로 ~~현재~~ 현재 계신 여러분의 어른들에게서 부디 몸건강히, ~~정진~~ 정진하신 곳 많이
 무관하게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C매한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수행~~ 수행 보살들의 모임인 한국대각불교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언제나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수행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평생을 안고 간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신~~ 신 분들을 무관하게 정진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수고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심으로 바깥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해산중
 지금 다시 주세요
 그리고 함께 바깥과 내 지니

상원선인 무문선 계층에 강사드립니다.
 기려 받듯이 주된 두께 정성을 강사드립니다.
 이렇기하는 주름과 이제 다 무와 같습니다.
 재게 두께는 인공과 이런 길이
 기층에 새기며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문선들께서는 건강하게 용해되길
 희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강사드립니다.

2020. 1. 24

2020. 1. 24.

무문선들께 (168) 주시기를 권합니다.

* 각문서이 무문선들께

① 분 ② 주사 ③ 영 ④ 신상.

* 주: 무문선들께 주시겠습니까?

* 봄바람이 어쨌든 스쳐가듯 봄이 되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세요!!

신중양기에 건강하게 무문선들
 희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 1. 26 강능 봉선사

서유, 필업

13:40 90C - 56% ⇒ 분말상

No.

Date _____

4. R-2: 0.02%

저녁에 있을 때 $\frac{1}{2}$ 이하 $\frac{3}{4}$ 이하

320101 101722 0421 24.50

2월 1일 40일

$\frac{0}{1}$ 리 사각 1/2 리 사 2 리 거 가늘은 5 리 거
 1/4 리 가 2 리 거 이 리.

△ 677777 7777 777777 7777 777777
077777 7777 . . .

지나간 일 여덟 개월이 지났고 30일
두 개월이 지났고 .

10시간 정도인 것 같아 내일 보낼게요!
조금 더 공부

7204000 45111 6111 2.

CFM.

지구의 몸가치 아이. 기온은 75 부위.

노랑새끼이 북/2/9

$\frac{1}{2} \times \frac{1}{2} = \frac{1}{4}$

PENPIA

2020. 1. 29 (수요일)

No
Date

약사암 일성전원

최순례. 김한순. 조미영

화이팅! ~♡~

기운 넘시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

- 상원선원에 자승스님,
약사암 성곡스님의 구분과(별칭)이
선원기도를 한다는 것이 영광이고
머사에 (개인)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 내일은 꼭비 내가 짝해요. (칭소도 내가)
수고 했어요. (칭소)

2. 약으로 이 약이요 (손으로 해서)

약 주워요. 야 ~ 대단하네.

화장실이 더 따뜻해요.

천기가 올라와서 몸이 무척 무거워요.

서로 돌아가면서 해 봐요. (조별)

(하나의 느낌이고 주의, 번갈음...)

기도중 주우면 침강술이 쓰려고요.

웃기겠네요. (제우반생이 보면)

괜찮은 생각입니다.

화장실 휴지? 신에도 있잖아요
나갈 때 검은 봉지째 가지고 나가요.

2020. 1. 30 ~ 1. 31

봉화사, 자진성, 민화성, 관음성 → 관음심

정진 제형으로 생활의 困 생함이다.

2pm -21°C / 45%

5pm * 15°C / 55%

6시 12.5°C / 63%

잘 때!

계곡에서

연두

X

계곡에서
눈
눈
눈
21°C

7시 9.9°C 79%

8시 8.5°C 85%

9시 6.4°C 88%

10시 4.2°C 90%

11시 3.2°C —

대부분 4시 2.4°C —

6시 2.9°C —

7시 3.2°C

9시 4.1°C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물어봐도

관한을 까-하 ?

:D:

2020년 1월 1일

김상환

김전동

황익홍

박영호

상위선원에 9분 스님이 응맹
정진하시는 원력에 감사라도
동참해보기 위해 1박2일 정진
수행 공간에 들어 왔습니다.

모든분이 뜻하시는 ~~행운~~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 건강하게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황익홍 함장

No.

Date

25

2020 5月21日

020 2월 24일
세상을 흔들어놓은 이 역사적인
마음의 평화가 국민의 행복이
국가의 비전으로 지켜주시길
바라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봉원사 법장, 김철호

No.

Date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020, 2.2

한글
한글
한글

비추어 보거리!

9분의 스님 꼭 戒律을 이루소서
이보게 관상가 양반 9분스님.
부처님 대시겠는가 예. 꾸이루어
쥬나리. 그러면 관상가 양반은
天雨 거름이네! 이리로 밭습나리요

오늘로 상월선원에서 如法하게 精進
라려! 김상륜 김철동 홍익홍 박영호
네분의 가림이 부처님의 기피가여여하길
천우함장

2002년 2월 2일

9인의 철학이 놓으신 스님들이
경사 정신 등감 2일째입니다.

이번 등감 재가자들 중에 마리막 ^{기수로} ~~기수로~~
대응할 ~~못~~게 되었다

2월 7일 ^{경사를 해제하고} 전강하고 큰소리를 들으신
철학이 놓으신 스님들이 한쪽 부처의 중흥에
큰 자식이 되라고 믿는다.

~~타락~~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등감하여 이미 부처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었다.

이번 기운이 부처의 대한민국의 민심이 ^{등감되고} ~~등감되고~~
정치 지도자들은 ^{생각자} 자기 화생의 지도력을 본받아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부처의 적과 같은 부처를 두고
평화 통일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재가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러나 지난밤은 자내비 새벽이 전혀
 있는 부각판판 정전도양이나 2222
 장바를 몇몇 끼이고 천상에 들어가 잠시
 누워 불어는 것도 주워서 잠이 오지 않았다.
 일백이십의 수행 일정도 이러할 지니
 90일간의 동안은 전대는 것은 본래의 수행
 정진마음은 전대 힘들 거란 생각을
 항상 선수행 체함을 통해서 짐작하게
 느껴지고 비록 짧은 짧은 체하기만 하지만
 함께 동참해 보았다는 것이 보람으로
 남는다.
 저것이 주위에서 불어 오는 것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고요한 양의 결사정진을 통하여
 빛나는 것은 일주일의 거리를 가드립니다.
 이것은 성심대일이다. 한국불교

더욱 빛나게 중흥해서 모든 분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이 전달되는 제가-
의 것이라곤 ~~없음~~ 생각합니다.

또한 새가장

새가장